

4

추동리·화봉산암각문

조사경위

추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은 가장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평팔경을 중심으로 암각문을 조사하던 중 최종규 문화원장의 제보로 이들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화서학과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과 관련된 자료였다. 시대나 성격상 앞의 자료와 거리감이 있고, 더욱이 한국근대사에는 전적으로 문외한이었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에도 현장자료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었다. 금번 이 책자를 간행함에 있어 겨우 정리하였으나, 무리가 없지 않다. 1993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거듭하였는데, 추동리 암각문은 처음 조사 때보다 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존 대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둘러 이들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추동리·화봉산 암각문의 역사적 배경

1. 화서학파와 척사위정 운동

추동리와 화봉산의 암각문은 조선말기에서 개화기 전후하여 활동한 화서학파(華西學派)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와 그의 문인이며 포천 출신인 최익현(崔益鉉)·유기일(柳基一) 등이 그들의 주자자학적 세계관과 척사위정(斥邪衛正)의 결연한 의지를 새겨 놓은 것들이다. 이 암각문 자료는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이 포천지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우선 기존의 연구업적을 통해 화서학파의 척사위정론과 항일의병활동 양상을 대략 살피기로 한다.⁷³⁾

73) 화서학파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상사연구회에서 펴낸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1)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학행

화서 이항로는 1792년 경기도 양근(지금의 양평군) 벽계리에서 태어났다. 1868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한 번도 현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기호 노론의 후예로서 학통과 도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였다. 먼저 그의 학통은 『학문도통연원도(學問道統淵源圖)』에 의하면 송시열(宋時烈)과 같은 시대의 인물인 이단상(李端相)으로부터 연원하여 김창흡(金昌翕), 김양행(金亮行), 이우신(李友信)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그의 이러한 학통은 다소 미미한 점이 없지 않다. 반면 도통의 전승은 뚜렷하다. 그의 학행(學行)을 이해하는데도 더욱 도움이 된다.

그는 일찍이 33세 때(1824년) 선조(宣祖)의 어필(御筆)과 송시열의 친필이 새겨져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巖)을 찾아 송명멸청(崇明滅淸)의 존화외리(尊華義理)를 가슴 속에 새겼으며, 45세 때(1836)는 청주 화양동에 있는 송시열의 묘와 만동묘(萬東廟)를 참배하였다. 만동묘는 임지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파견한 명의 신종(神宗)을 기리는 곳이다. 그가 열렬히 흠모하였던 이는 바로 송시열이었다. 그는 도통의 줄기를 공자(孔子)-주자(朱子)-송자(宋子)로 잡을 정도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대의(春秋大義)와 맹자의 의리지사(義理之辭) 또는 벽이단(闢異端), 그리고 주자의 노불변척(老佛辨斥)과 『통감강목(通鑑綱目)』 등을 통한 “존화양이(尊華揚夷)”의 대의를 도학적 맥락으로 삼았다.

이러한 도통은 그의 여러 저술에서도 나타난다. 저술은 자신이 직접한 것도 있고 아들이나 문인들을 시켜 편찬케 한 것도 있다.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이어 장남 이준(李峻)에게 『주자대전집차

(朱子大全集節)』를 편찬케 하였다. 그의 문집인 『화서집(華西集)』에 그의 기호 노론의 학통과 도통을 잇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여 있다.

그는 벽이단론(關異端論)을 바탕으로 몸소 척사위정(斥邪衛正)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75세 때(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고종은 좌의정 김병학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에게 승정원동부승지를 제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러 문인들을 대동하고 직접 서울로 가서 노쇠함을 이유로 사직소를 올렸다. 다시 공조참판에 제수되자 또 사직소를 올렸다. 그러면서 사직소의 내용에다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이것을 발원처로 하여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과 의병 운동이 전개되었다.

2) 화서학파 문인

이항로의 뒤를 이은 화서학파는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주자학의 최후·최대의 면모를 장식한다. 그의 문하중 대표적인 인물로 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최익현(崔益鉉)·유인석(柳麟錫) 등을 들 수 있다. 김평묵의 뒤를 잇는 이들로 최익현·홍재구(洪在龜)·유기일(柳基一) 등이 있으며, 유중교의 뒤를 잇는 이들로 이근원(李根元)·유인석·유중악(柳重岳)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자학설과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낸다.

김평묵(1819-1891)은 포천에서 청풍 김씨(淸風金氏) 성양(聖養)의 아들로 태어났다. 2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나아가 수제자의 위치에 섰다. 병인양요 때 유중교와 함께 스승 이항로를 모시고 상경하였으며, 척사위정

의 상소에 적극 가담하였다.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의 소수(疏首) 이만손(李晩遜)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나주의 지도(智島)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저술로 『이정전서집의(二程全書集疑)』 『근사록부주(近思錄附註)』 등을 편찬하였으며, 화서 이항로에 관련한 여러 책을 편집하였다.

유증교(1832-1893)는 서울에서 고흥 유씨(高興柳氏) 조(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와 충북 제천 장담으로 이사해 살았다. 화서의 문인으로 김평묵에게도 수학하였다. 김평묵 만큼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최익현(1833-1906)은 포천에서 경주 최씨(慶州崔氏) 대(垓)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생 끊임없는 상소와 강고한 척사위정·의병 운동으로 점철되었다. 만동묘와 서원 철폐 반대, 원납전 중지, 당백전의 혁파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가 하면,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지자 도끼를 들고 궐문 앞에 엎드려 척화소를 올린 것은 유명한 일이다. 1906년 이후로는 의병 운동으로 전환하여 적극 이끌어 갔다. 대마도에서 74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유인석(1842-1915)은 강원도 춘성군 가정리에서 고흥 유씨 중곤(重坤)의 아들로 태어나 만주 땅에서 죽었다. 14세 때 화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활동은 의병 운동기에 두드러진다. 1895년에는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충주·제천 등지에 활약하다가 실패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3) 화서학파의 척사위정 운동과 의병활동

화서학파의 운동과 철학은 모두 「벽이단론(關異端論)」을 이은 척사론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서가 주장한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尊華攘夷)”는 춘추의리(春秋義理)는 그들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다.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은 춘추 의례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화서학파의 역사관을 잘 보여준다.

화서학파 문인들의 척사위정 운동은 개항을 전후하여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째 시기는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거쳐 대원군의 쇄국정책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항로가 직접 참여한다. 이항로는 사직소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현실인식과 내수어양책을 제시한다. 그는 화이론(華夷論)의 입장에 서서 서양인을 윤리도덕이란 조금도 없고 오직 물질적인 것과 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오랑캐요, 그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양의 물품을 사치품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통상하면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시기에는 화서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평묵과 홍재구가 중심이 된 「병자연명유소(丙子聯名儒疏)」와 최익현의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가 있다. 이 당시의 척사위정 운동은 일본과의 개국통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배척 대상은 일본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서학파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셋째 시기에는 김평묵의 제자이자 사위인 홍재구와 홍재학(洪在鶴)이 올린 「관동연명유소(關東聯名儒疏)」 사건이다. 김평묵은 이 때문에 전라

도 지도로 유배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척사위정운동은 전국적인 유생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척사위정 운동은 1890년대 중반 이후 의병운동으로 전개 된다. 의병 운동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충의정신에 입각하여 외적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항쟁한 군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의병운동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의 개혁에 항거하여 발발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의병 운동이 참여하였다. 1909년 군대해산 이후에는 해산당한 병사와 평민, 의병진까지 합세하여 일본과 맞서는 범국민적인 대일본 전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화서학파의 문인인 유인석과 최익현의 의병 활동이 돋보인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상소에서 의병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에서도 존왕적 성격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2. 화서학과 문인들이 남긴 암각문

화서학과 문인들이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등지에 남긴 암각문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화서 이항로가 척사위정의 뜻을 다짐하는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가평군의 조종암(朝宗巖)에 각자된 암각문이었다. 그는 33세 때(1824년) 선조의 어필과 송시열의 친필이 새겨진 조종암을 찾아 송명멸청(崇明滅淸)의 존화의리(尊華義理)를 가슴 속에 새겼다. 조종암에는 선조의 어필인 「萬析必東」 「再造藩邦」과 효종이 이경흥(李敬興)에게 준 「日暮道遠 至痛在心」의 암각문이 있다. 뒤의 자료는 송시열의



◀ 조종암의 암각문

글씨이다. 45세 때 찾은 화양계곡에는 명나라의 신종(神宗)이 쓴 「非禮不動」이라는 암각문이 있다.

화서가 거주하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여문리 벽계마을에는 화서가 새겨 놓은 암각문이 여러 점 현전하고 있다. 사당 앞 바위에는 전면에 「霽月臺」라 전서로 크게 새기고, 왼편에는 작은 글씨로 「莫遣微雲 點綴 練光 極虛極明 以配太陽」이라 새겨 놓았다. “작은 구름을 보내어 맑은 빛을 얼룩지게 하지 말라. 지극히 텅비우고 밝게 하여 태양에 짝하게 하리니”라는 뜻이다. 이밖에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의 문집에도 나타난다.



▼ 안성 비봉산 암각문

▲ 제월대 암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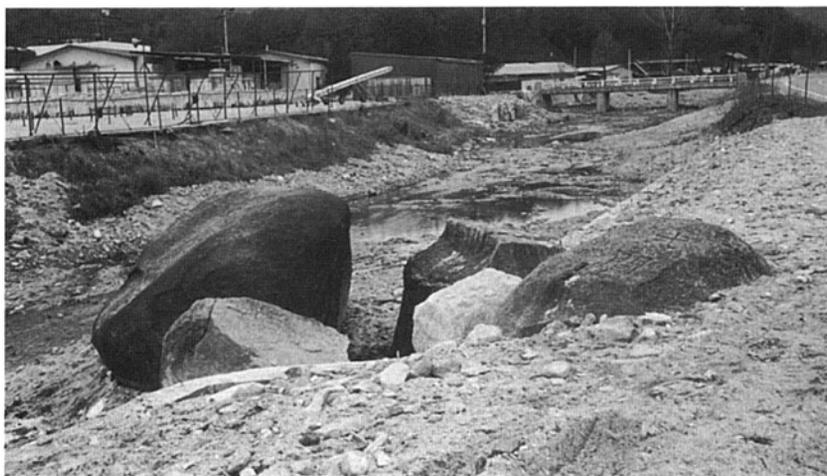
위의 암각문은 화서가 정미년(丁未年; 1847) 여름에 직접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화서는 이밖에도 벽계 집 주변의 기암괴석에 이름을 붙이고 각자(刻字)해 놓았다. 참고로, 옆의 암각문은 안성읍 비봉산 장군암에 새겨진 자료인데, 1873년(고종10)에 제작된 것이다. 화서학파의 한 사람인 강복선(姜復善)이 쓴 것을 각자한 것이다.

1. 추동리 암각문

추동리의 암각문은 창수면 추동리에 있다. 포천읍내에서 325번 지방도를 따라 창수면쪽으로 추동2리에 이르면, 고일리로 들어서는 입구에 「추동1교」 다리가 있으며, 바로 곁에 이 자료가 방치되어 있다. 다음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2개의 바위에 각자한 것인데, 1993년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는데, 1997년 1월에 확인할 당시는 거의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처음 조사 당시에도 최종규 문화원장님의 제보에 의하면, 바위 1개가 더 있었는데 공사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암각문이 있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바위 2개에 각자된 3개 뿐이다. 편의상 암각문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華西帶銘> <華西書手銘> <式閭>라 지칭하기로 한다. 이 자료들의 제작 연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서 신미양요(1871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짙다.



▲ 1993년 조사 당시의 전경



▲ 1997년 조사 당시의 전경

〈자료4:1〉 화서대명(華西帶銘)





				華	程	周
李	柳	崔	門	西	一	幾
承	基	益	人	帶	朱	張
志	膺	一	鉉	小	直	豫
			子	銘		

* 글씨크기: (大) 20cm × 25cm

(小) 15cm × 20cm

<자료4:1> 「화서대명(華西帶銘)」은 암각된 명문(銘文)에서 필자가 편 의상 지칭한 명칭이다. 이 암각문은 화서 이항로가 제자 최익현·유기일, 아들 이승응(李承膺)과 연명해서 새겨 놓은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20cm×25cm, 작은 글씨가 15cm×20cm 정도이다. 내용은 송대(宋代)의 대표적인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자(程子)·주자(朱子)의 인품과 학문적 특징을 집약해 칭송한 것이다.

周幾張豫 주돈이의 기밀(機密), 장재의 예비(豫備)
程一朱直 정자의 전일(專一), 주자의 방직(方直)

주돈이는 염계(濂溪) 선생으로 일컬어지며,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설(通說)』 등을 저술해 이기학(理氣學)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는 그의 제자이다. 장재는 횡거(橫渠) 선생으로 불려 지는데, 기(氣)에 의한 우주 구성,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양론(修養論)을 주장하여 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저술로 『동명(東銘)』 『서명(西銘)』 등이 있다. 정자(程子)는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정호는 명도(明道) 선생으로 흔히 불려지며,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성(性)이 본래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이는 이천(伊川) 선생으로 불려진다. 『역경(易經)』 『춘추전(春秋傳)』 등을 저술하였으며, 처음으로 이기(理氣)의 철학을 제창하여 유교 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였다. 주자(朱子)는 주희(朱熹)를 지칭한다.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송학(宋學)을 주자학이라 칭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이다. 『근사록(近思錄)』 『시집전(詩集傳)』 『통감강목(通鑑綱目)』 논어·맹자의 집주(集注) 등을 저술하였다.

위의 송대 유학자들은 바로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이们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은 이들의 업적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화서학파는 우리나라 주자학의 최대, 최후의 학파로 이들의 학통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명분은 여기서 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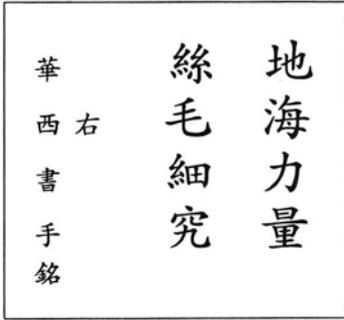
〈자료4:2〉 화서서수명(華西書手銘)

다음 <자료4:2>는 화서 이항로가 직접 쓰고 새긴 것이다. 앞의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했을 것으로 본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24cm×24cm, 작은 글씨가 15cm×20cm 정도이다.



〈자료4:2〉 화서서수명(華西書手銘)





- * 글씨크기: (大) 24cm × 24cm
(小) 15cm × 20cm
- * 글 씨: 李恒老 書

이 자료는 화서 이항로의 성품과 학문적 자세를 시사하는 자료이다.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地海力量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만한 힘과 도량을 기르고
絲毛細究 실과 터럭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탐구할 것.

위의 내용중 ‘地海’는 ‘地負涵海’에서 온 말로, “땅을 지고, 바다를 넣을 만큼 광활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화서 이항로가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표로 삼았던 글귀로 생각된다.

〈자료4:3〉 식여(式閼)





勉 翁
式 閣

- * 글씨크기: (大) 30cm × 36cm
(小) 15cm × 35cm
- * 글 씨: 崔益鉉 書

이 자료는 면암 최익현이 써서 새겨 놓은 것이다. 앞의 두 자료보다는 나중에 제작했을 개연성이 짙다. 스승인 화서의 글씨를 새겨 놓고 이 암각문 주위를 오가는 이들로 하여금 경의(敬意)를 표하도록 하기 위해 각

자한 것이다. 글씨의 크기는 큰 글씨가 30cm×36cm, 작은 글씨가 15cm×35cm 정도이다. 현재는 도로 공사로 인해 거의 매몰될 직전에 처해 있다. 보존 대책이 절실하다.

2. 화봉산 암각문



화봉산(花峯山)은 화산(花山)이라고도 한다.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방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182m이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선생의 신위를 모신 화산서원(花山書院)이 이 산기슭에 있다. 화산서원 뒷편에 마을이 있고, 산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 절이 있다. 이 절을 끼고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봉산의 8부 능선 쪽에 병풍을 둘러치고 자리를 편듯한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에 화서 문인들의 필적을 새긴 암각문 3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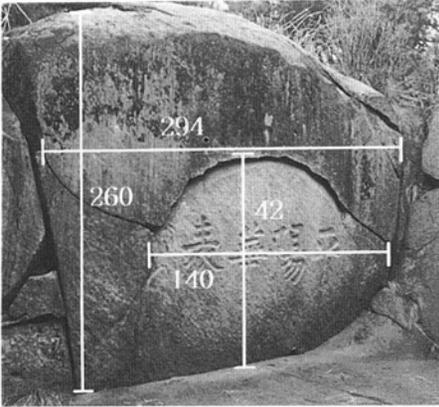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는 구체적으로 조성 연대와 조성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 부분 좌우에 각각 화서문인들의 척사위정의 결의를 새겨 놓고는 좌측에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좌측의 자료에 “이승웅(李承膺)·이유선(李裕善)이 이규용(李圭容)·나유영(羅有英)·안항선(安恒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화표석(華表石)에 큰 글씨 20자를 새겼으며, 이는 유기일(柳基一)이 쓴 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조성 연대는 계사년(癸巳年) 봄, 즉 1893(고종30)이다. 「화표석」이라는 명칭은 암각문 자료 「平陽華表」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5:1〉 화표석(華表石)(1)

이 자료는 중앙부 우측 하단에 새겨져 있다. 화표석(華表石)은 바로 이 자료와 좌측에 새겨진 <자료5:2>를 함께 지칭한 것이다. 글씨 한 자의 크기는 33cm×42cm 정도이다. 「平陽」은 요(堯)임금 시대의 도읍지로,

중국의 표상이기도 하다. 흔히 태평성세의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華表」는 요임금 시대 때 위정자(爲政者)에 대한 불만이나 비방을 백성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로 등에 세워 놓았던 표목(表木)을 말한다. 백성들의 언로(言路)를 열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요즈음의 민원고발카드나 대자보 같은 것이다. 여기서 「平陽華表」는 요임금 시대의 표석, 즉 백성들의 언로를 표상한다. 화서문인들이 이같은 글귀를 새겨 놓은 뜻은 바로 그들의 척사위정의 지표를 결연히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대의 위정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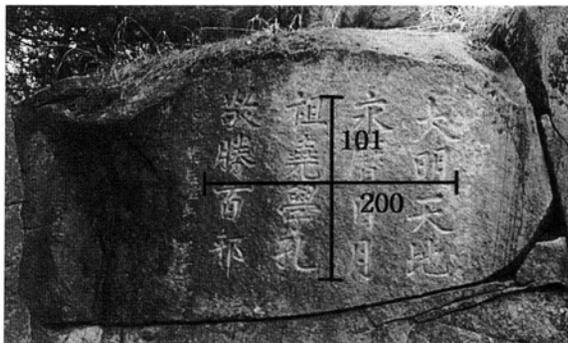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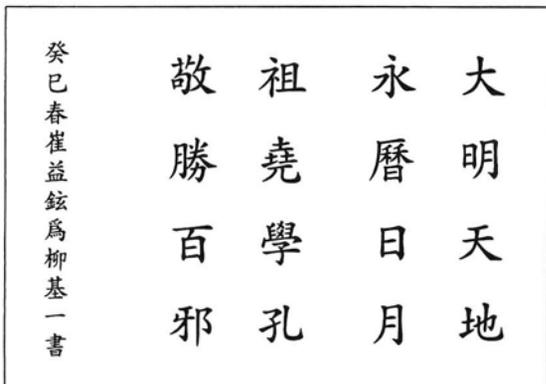
◀ 화표석(1)

* 글씨크기: 33cm × 42cm

* 글씨: 柳基一

〈자료5:2〉 화표석(2)





◀ 화표석(2) 규모
 * 글씨크기:
 (大) 24cm × 24cm
 (小) 9cm × 10cm
 * 글씨: 崔益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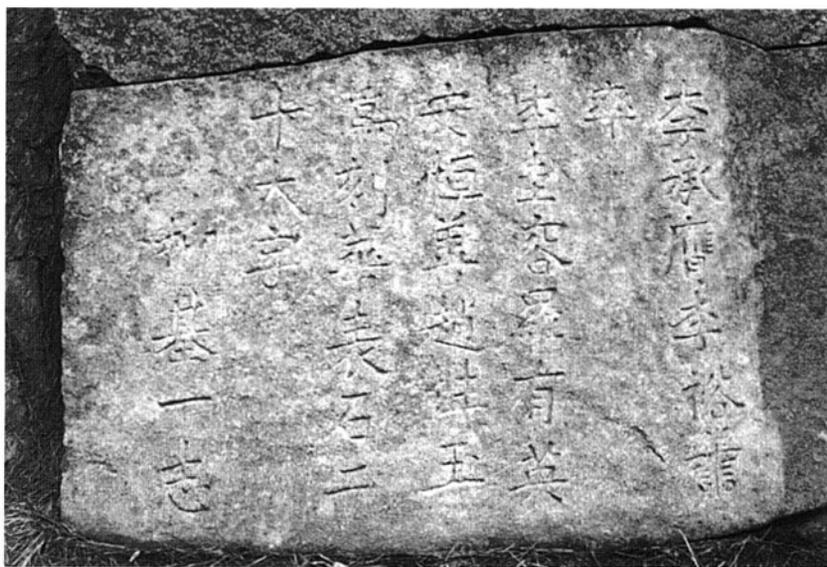
이 자료는 화서학파의 주자학적 세계관과 척사위정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大明」은 명나라를 높여 부른 말이다. 「永曆」은 명나라 영명왕(永明王)이 16년간(1647-1662) 사용한 연호이다. 이 화표석의 내용을 풀이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大明天地 위대한 명나라의 천지요
 永曆日月 명나라의 해와 달이네
 祖堯學孔 요임금을 조종으로 공자를 배워서
 敬勝百邪 삼가 온갖 사특함을 이기자.

전반부에는 송명(崇禎)의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후반부에는 주자학적인 척사위정의 지표가 나타나 있다. 뒷부분에 “계사년(1893 봄에 최익현이 유기일을 위해 쓴다”는 기록이 있어 조성 연대와 글쓴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5:3〉 화표석(3)





李承膺李裕善
率
李圭容羅有英
安恒善趙世玉
爲刻華表石二
十大字
柳基一志

* 글씨크기: 12cm×12cm, * 글씨: 柳基一

<자료5:3>은 중앙부분 좌우에 새겨진 <자료5:1> <자료5:2>를 각자 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비로소 화봉산의 암각문 자료가 화표석(華表石)으로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에 서 보듯이 화표석은 화서의 아들인 이승웅(李承膺)·이유선(李裕善)이 이 규용(李圭容)·나유영(羅有英)·안항선(安恒善)·조세옥(趙世玉)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다 각자한 것이다. 끝부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기일이 기록한다고 하였다. 가로·세로 164cm×193cm 크기의 면적에 각자하였는데, 글씨 크기는 12cm×12cm 정도이다.

이자료는 백로주 지역의 북신석(北辰石)에 각자된 내용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 이승웅·나유영·조세옥은 북신석의 암각문 조성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밖에 「一心岩」이라는 암각문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뒤에 누군가가 별도로 각자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화서 이항로(李恒老)의 사당 주변에 「一柱岩」이라는 암각문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서의 문인이나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식자층에서 각자하였을 가능성이 짙다.